

모의 자율성지지 및 조건부 관심, 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이 지 연

장 형 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Theory)과 Rogers의 인간중심적 접근에 근거하여 모의 양육태도(자율성지지 vs. 조건부 관심)가 자녀의 동기(자율적 vs. 통제적)를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학생 166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모의 자율성지지 태도, 조건부 관심 태도(조건부 관심강화 또는 조건부 관심철회),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을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는 자율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모의 조건부 관심 양육태도는 통제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 또는 조건부관심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자율적 동기 또는 통제적 동기와 같은 동기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율적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순기능적 역할 및 모의 조건부관심 양육태도가 자녀의 통제적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역기능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양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유의미성을 짚어볼 수 있겠다.

주요어 : 자율성지지, 조건부 관심,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

[†] 교신저자 : 장형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동구 17번지, E-mail: janghs@hanyang.ac.kr

서론

도움행동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관계를 밝게 이끌어 주며, 개인의 삶을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Ladd & Kochenderfer, 1996).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개인, 조직 또는 사회가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을 돕거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다. 여기에는 나누기, 돕기, 위로하기, 협동하기 등 타인이나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의 행동이 포함된다(Eisenberg, Cumberland, Guthrie, Murphy, & Shepard, 2005).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관점을 추론하는 ‘지각적 조망 수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역할담당’ 능력,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는 ‘감정이입’ 등의 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Schwartz & Bilsky, 1990; Weinstein & Ryan, 2010). 친사회성이 낮은 개인은 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수준이 낮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친사회적이지 못한 학생일수록 청소년 범죄,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 또는 위험장면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관찰해 볼 수 있다(권주현, 박영신, 2013).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교육학자들은 어떤 조건하에서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이 유발되는지에 관해 주목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의 예측에 환경적 맥락인 가정환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장혜림, 정익중, 2013; Patterson,

Cohn, & Kao, 1989; Knafo & Plomin, 2006). 유아기·아동기를 통과하며 청소년들은 사회화(socialization) 및 학습을 통해 친사회적 성향을 발달시키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뜻함과 공감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포함될 때 자녀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학습능력, 긍정적 정서 및 타인을 존중하는 적응적 모습을 보임을 보고한다(Furnham & Cheng, 2000; Garner & Spears, 2000). 반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대해 거부적이고, 적대적이며, 과도하게 엄하고, 가혹할 때 자녀는 또한 적대적이고 공격적 성향을 보임을 보고한다(Dodge, 1993; Eron, 1982).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중 모(mother)는 전통적으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자녀의 인지·정서·행동 발달에서 모의 영향력은 그 비중이 높다(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모의 양육태도(parenting style)가 실제로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 및 친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과 Carl Rogers의 인간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Rogers, 1965)을 배경으로 하여,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독립변인으로 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성지지(autonomy-support)와 조건부관심(parental conditional regard)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독립변인이 자녀의 친사회성 동기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을 수립하였

다. 상기의 연구모형 수립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과 자율적 동기

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은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Deci & Ryan, 1985, 1991; Ridgy, Deci, Patrick, & Ryan, 1992; Ryan & Deci, 2000a, 2000b).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 이론 중 하나인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은 기존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또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라는 이분법적 동기유형을 개인의 자기결정성 혹은 자율성 정도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였다. 만일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 또는 통제라는 조건화에 의해 인간의 동기가 형성될 때, 개인의 자율성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이를 통제적 동기로 구분한다(Ryan & Deci, 2002).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는 보통 외적조절(예: 보상 또는 처벌에 의해 동기화된 상태)과 투사조절(예: 타인 또는 사회적 기대치가 투사된 자부심, 수치감이나 또는 죄책감에 의해 동기화된 상태)이 통합된 형태를 지닌다. 반면, 개인의 동기가 외부조건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주도성에 의해 형성될 때 개인은 높은 수준의 자율적 동기를 보인다.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는 동일시 조절(예: 가치, 유용성,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발현된 동기)과 내재적 동기(관심, 흥미, 호기심, 기본심리욕구 등에 의해 동기가 통합된 형태이다(Ryan & Deci, 2002; Vansteenkiste, Lens, Soenens, & Luyckx, 2005).

개인이 자율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지, 또

는 통제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동기의 성격이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에 따라 개인의 느낌, 사고, 행동은 질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Gronick & Ryan, 1987; Ryan & Connell, 1989; Vallerand & Bissonette, 1992). 실제로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기실현, 자아발달, 자존감, 개방성,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및 자신의 진실한 감정수용(김아영, 차정은, 2010; 김주영, 김아영, 2014; Deci & Ryan, 1985; Koestner, Bernieri, & Zuckerman, 1992; Scherhorn & Grunert, 1988), 높은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웰빙(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종교, 교육, 친사회적 행동 등이 자율적 동기와 밀접한 관계를 있음을 보고한다(Ryan & Connell, 1989; Ryan, Ridgy, & King, 1993). 반면에 통제적 동기가 큰 개인은 외적 보상, 사회적 기대치, 사회적 관심(e.g., 타인을 기쁘게 하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들은 환경적 요소(e.g., 급여, 사회적 승인, 성과 등)에 의존(Weinstein & Ryan, 2010)하며 과업이나 학업을 수행하기에 호기심이나 흥미 그리고 활력과 같은 긍정정서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Reeve, Ryan, & Kim, 2009).

친사회적 행동의 가치는 개인이 외적보상(예: 봉사점수, 칭찬)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함께 배려하고 공존하며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때 빛을 발한다. 친사회적 행동이 선택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임을 간주할 때, 친사회적 행동의 가치, 중요성, 참의미를 이해하고 승인하는 자율적 동기의 활성화는 자녀들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현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1985)에 근거한 모의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양육태도 및 Carl Rogers(1965)의 인간중심적 접근에 근거한 모의 조건부관심(parental conditional regard: 조건부 관심 강화 및 철회)양육 태도가 자녀의 동기 및 친사회적 행동에 어떤 형태로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검증해봄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자율성지지 및 조건부 관심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성지지 또는 통제적으로 구분하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성지지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는 자녀의 진정한 자아 발전과 자율적 행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한편, 반대로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승인과 관심을 얻는데 초점을 두게 하여 자녀의 자율성 촉진에 저해가 되며 자녀의 타율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한다(Ryan & Lynch, 1989), 달리 말하면,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이나 외부조건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하며, 자녀의 자기실현과정에 방해로 작용한다(Deci, & Ryan, 2006). 반면,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동기를 촉진한다(Grolnick, Deci, & Ryan, 1997). 관련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율성지지 태도는 자녀의 내재적 동기, 긍정 정서(Grolnick, Kurowski, McMenemy, Rivikin, & Bridges, 1998;

Roth & Assor, 2012), 성취와 적응(Grolnick, Deci, & Ryan, 1997), 친사회적 행동(Gagné, 2003; Pavey, Greitemeyer, & Sparks, 2012)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와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Carl Rogers(1965)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조건부관심(conditional regard)에 초점을 둔다. 조건부관심은 부모가 부여한 기준에 따라서 자녀가 행동할 때 자녀는 사랑받고 수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최근의 연구는 모의 자녀에 대한 조건부관심 양육태도는 결과적으로 모의 행동양식과 신념을 자녀로 하여금 따르고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자녀에게 부과함을 보여준다(Assor, Roth, & Deci, 2004; Assor, Kaplan, Kanat-Mayman, & Roth, 2005). 조건부 관심은 긍정적 및 부정적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녀가 모가 원하는 행동이나 특성을 보일 때, 모는 자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여한다. 이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조건부 관심강화(parental conditional positive regard)라고 지칭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녀가 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모가 자녀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을 철회할 때, 이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조건부 관심철회(parental conditional negative regard)라고 한다(Assor, Roth, & Deci, 2004).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는 자녀로 하여금 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한 내적 강압을 느끼게 한다. 이는 자기조절을 억압시키거나 부적절한 조절을 유도하여 처벌과 보상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초점을 둔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모의 조건부 관심철회는 모에 대한

원망을 유발시키고 자녀의 동기결핍 및 행동 부재로 이어진다(Roth,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따라서 모의 자녀에 대한 조건부관심은 모가 처벌과 보상, 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유발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동기화시키기에 통제적 양육태도의 성격을 지닌다. 이때 자녀는 통제적인 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통제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불안·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동기적 역기능(e.g., 비동기, 무력감, 분노)과 부적응적 기능(e.g, 수동성, 완벽성)을 경험함을 보고한다(Assor, Roth, & Deci, 2004; Roth & Assor, 2012). 최근에 발표된 연구(Assor, Kanat-Maymon, & Roth, 2014)는 부모가 조건부 관심으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자녀는 (1)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2) 편협하고 낮은 질적 수준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3)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보이며, (4)부모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연구결과를 전한다.

요약하면,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통제적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방식에 정적이거나 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성의 관계를 자기결정성 이론 및 인간중심적 접근의 관점에서 동기와 접목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자율성지지 vs. 조건부 관심)와 자녀의 동기(자율적 vs. 통제적),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자율적 동기(또는 통제적 동기)가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형에 근거한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모의 자율성지지 태도는 자율적 동기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1-2.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 태도는 통제적 동기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1-3. 모의 조건부 관심철회 태도는 통제적 동기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예측된 자녀의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자녀의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가설 2-2. 자녀의 통제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자녀의 동기는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자녀의 자율적 동기는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자녀의 통제적 동기는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 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자녀의 통제적 동기는 모의 조건부 태도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모의 양육태도(e.g., 자율성지지, 조건부 관심강화, 조건부 관심철회)를 독립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녀의 동기(e.g.,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가설적 연구모형(그림 1)을 수립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는 서울 및 충청 소재 대학생 166명(남: 36.1%, 여: 63.9%)이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을 함께 보는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초·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자율적 행동이라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상으로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을 선정하고 이들이 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 그리고 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자녀들의 동기(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또는 통제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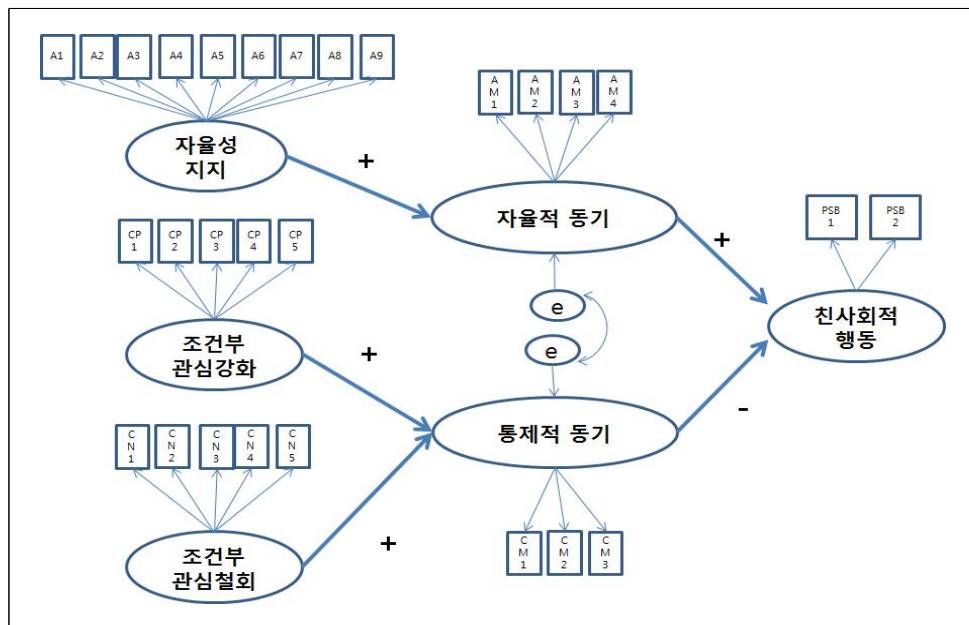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대상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인지적으로 아직 발달시기에 있는 아동 및 초·중기 청소년보다 인지적으로 성숙한 발달을 이룬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다양한 문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자들은 심리학 관련 전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3분 동안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과 시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 후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 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 순으로 제시된 총 8장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설문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총 1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된 4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6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선정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Perception of Mother's Parenting Style)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모의 자율성지지 척도는 Williams, Grow, Freeman, Ryan과 Deci(1996)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김아영, 차정은

(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의 자율성지지는 모의 태도가 자녀의 목표나 가치, 흥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가를 9문항으로 평정한다. 모의 자율성지지의 예시문항으로 “어머니는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가 대표적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모의 자율성지지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조건부관심(Perception of Parental Conditional Regard Scale-Academics; PCRS-A)

모의 조건부관심 척도는 Roth, Assor, Niemiec, Ryan과 Deci(2009)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김아영, 차정은(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의 조건부관심 척도는 2가지의 하위 구인(조건부 관심강화와 조건부 관심철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가 보이는 조건부 관심강화(Parental Conditional Positive Regard, 5문항)는 자녀가 모의 기대에 맞게 행동했을 때 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문항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 모가 보이는 조건부 관심철회(Parental Conditional Negative Regard, 5문항)는 자녀가 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어머니는 나에게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다.”가 대표적이다. 모의 조건부관심 척도의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88을 보였으며,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는 .86, 조건부 관심철회는 .89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
(Autonomous Motivation to Help Scale)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는 Weinstein과 Ryan(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결정성 연구(e.g.,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 Ryan & Connell, 1989; 종교적 행동을 위한 동기, Ryan, Rigby, & King, 1993)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행동(e.g., 돕기 행동)에 대한 자율적(4 문항) 동기 및 통제적 동기(3문항)를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적 동기 및 통제적 동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80을 보였으며, 자율적 동기는 .82, 통제적 동기는 .77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Prosocial Behavior Tendencies Measures: PTM)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은 Carlo & Randall (2002)가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e.g., 돕기 행동,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개인의 가치 및 행동의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

적 행동의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은 23문항으로 평정되며, 예시문항으로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거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 편이다” 등이 있다.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81로 나타났다.

결 과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모의 양육태도(자율성지지, 조건부 관심강화, 조건부 관심철회), 동기(자율적 vs. 통제적), 친사회적 행동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예측한 대로 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자율적 동기($r=.17,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연구문제 1의 가설 1-1),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는 자녀의 통제적 동기($r=.1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연구문제 1의 가설 1-2)을 보였다. 또한, 모의 조건부 관심철회는 자녀의 통제적 동기($r=.30,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연구문제 1의 가설 1-3)을 보였다. 자녀의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r=.58,$

표 1. 기술통계 및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 | M | SD | 1 | 2 | 3 | 4 | 5 | 6 |
|----------------|------|------|--------|--------|--------|--------|--------|---|
| 1. 모의 자율성지지 | 5.11 | 1.19 | 1 | | | | | |
| 2.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 | 2.25 | 1.20 | -.68** | 1 | | | | |
| 3. 모의 조건부 관심철회 | 4.55 | 1.31 | -.03 | .27** | 1 | | | |
| 4. 자녀의 자율적 동기 | 5.25 | .88 | .17* | -.20* | -.04 | 1 | | |
| 5. 자녀의 통제적 동기 | 3.07 | 1.18 | -.21** | .16** | .31** | -.22** | 1 | |
| 6.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 4.67 | .73 | .18* | -.23** | -.16** | .58** | -.27** | 1 |

* $p<.05$, ** $p<.01$, N=166, 범위: 1점-7점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연구문제 2의 가설 2-1), 자녀의 통제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r = -.27,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연구문제 2의 가설 2-2)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 각 측정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가 -.82에서 .86, 첨도가 -.02에서 1.18까지의 분포를 보여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친사회적 행동으로 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에서는 변인들이 .18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1.09에서 5.66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Grimm & Yarnold, 2004).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보고, 본 자료를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가설적 구조에 의해 나타난 측정모형을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은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Arbuckle, 2011).

분석결과, 측정모형은 $\chi^2 = 722.462, p < .001, RMSEA = .054, CFI = .950, TLI = .931$ 로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변인들의 표준

화된 요인계수를 살펴본 결과 .57~.87의 범위로 모든 값이 .50이상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5요인 구조와 일치하고 각 척도들이 가설적 잠재변인에 적절히 부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모형 그림 2 참조에 포함된 잠재변수는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 및 조건부 관심 양육태도,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과 적합도(표 2 참조)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Arbuckle, 2011),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2에 보고되었다. 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동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모형 및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가설적 연구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각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각 가설적 경로들은 예측했던 방향대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첫째, 모의 자율성지지 양육태도는 자율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18, p < .05$), 모의 조건부 관심강화 양육태도는 통제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beta = .14, p < .05$)을, 모의 조건부 관심철회 양육태도는 통제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beta = .30,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가설 1-1, 1-2, 1-3을 지지한다.

두 번째, 예측된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강한 정적 영향($\beta = .76, p < .001$)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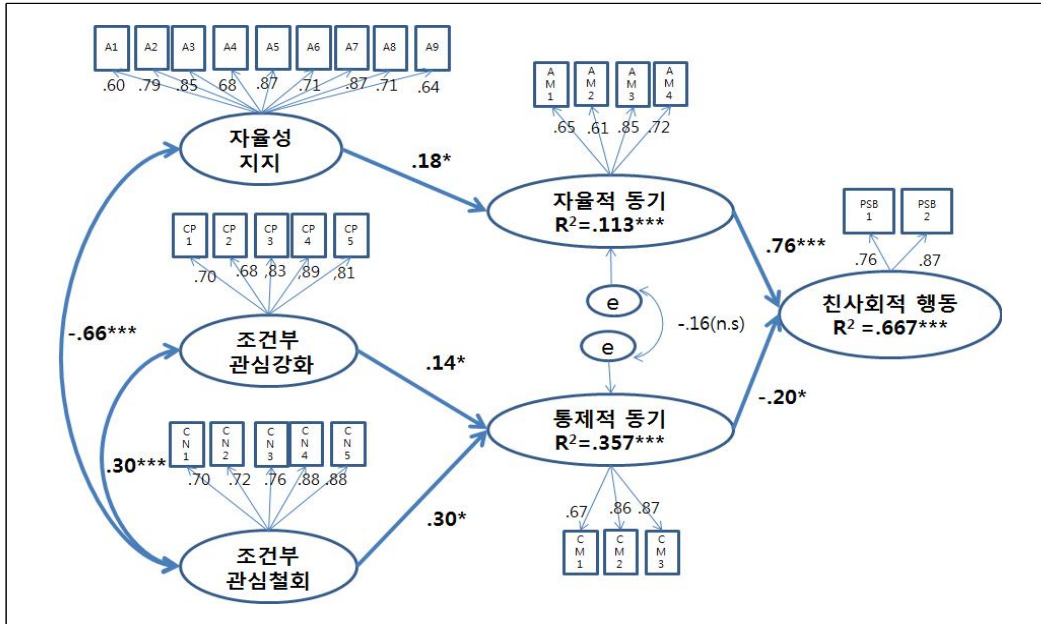


그림 2. 모의 태도 관련 연구모형 분석결과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 모형 | X^2 | df | p | RMSEA (90%신뢰구간) | CFI | TLI | NFI |
|------|---------|------|------|---------------------|------|------|------|
| 연구모형 | 723.737 | 342 | .000 | .052 (.044-.061) | .951 | .946 | .925 |

쳤으며, 통제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beta = -.20,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문제 2의 가설 2-1, 2-2를 지지한다. 이는 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보다 자율성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자녀의 지각은 자녀의 내적인 동기를 예측해주는 것으로 의미한다. 한편, 모의 조건부관심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녀의 통제적 동기를 더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가 자녀에게 학업이나 수행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관심을 덜 보일 때 또는

자녀의 학업이나 수행에 대해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할 때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외적동기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연구모형은 자율적 동기의 11% ($R^2 = .113, p < .001$), 친사회적 행동의 66% ($R^2 = .667, p <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 2000번을 실시하고 Bias-corrected 방법으로 .05 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간

표 3. 최종연구모형의 효과분해

| | 경로 | 직접효과 | | 간접효과 | | 총효과 | |
|-----------|-----------|-------|---------|-------|---------|-------|---------|
| | | 비표준화 | 표준화 | 비표준화 | 표준화 | 비표준화 | 표준화 |
| | | 계수 | 계수 | 계수 | 계수 | 계수 | 계수 |
| 자율성 | → 자율적 동기 | .121 | .178* | .000 | .000 | .121 | .178* |
| 지지 | → 친사회적 행동 | .000 | .000 | .089 | .135*** | .089 | .135*** |
| 조건부 | → 통제적 동기 | .126 | .136* | .000 | .000 | .126 | .136* |
| 관심강화 | → 친사회적 행동 | .000 | .000 | -.114 | -.117* | -.114 | -.117* |
| 조건부 | → 통제적 동기 | .222 | .302* | .000 | .000 | .222 | .302* |
| 관심철회 | → 친사회적 행동 | .000 | .000 | -.131 | -.159* | -.131 | -.159* |
| 자율적 동기 | → 친사회적 행동 | .735 | .757*** | .000 | .000 | .735 | .757*** |
| 통제적 동기 | → 친사회적 행동 | -.140 | -.196* | .000 | .000 | -.140 | -.196* |

* $p < .05$, *** $p < .001$

접효과를 살펴보았다(문수백, 2009). 그 결과, 자녀의 자율적 동기는 모의 자율성지지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3, p < .001$). 통제적 동기는 모의 조건부관심(조건부 관심강화, 조건부 관심철회)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7, p < .001$). 따라서 모의 태도는 통제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문제 3의 가설 3-1, 3-2, 3-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모가 자녀에게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은 통제적 동기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이론이 제시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녀가 지각한 모

의 자율성지지 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각된 모의 통제적 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통제적 동기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논 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모의 자율성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적 동기는 높았으며, 반면에 지각된 모의 조건부관심이 높을수록 자녀의 통제적 동기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김아영, 차정은, 2010; Assor, Roth, & Deci, 2004; Assor, Kaplan, Kanat-Mayman, & Roth,

2005; Roth,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Roth & Assor, 201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자율성지지 효과는 경쟁상황이나 학업성취 장면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까지도 적용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자녀의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높았고, 통제적 동기가 높을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들(Gagné, 2003, Pavey, Greitemeyer & Sparks, 2011; Weinstein & Ryan, 2010)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의 적응적 효과를 재확인 한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이 지각된 모의 태도(자율성 지지 vs. 조건부관심)에 의해 자녀의 동기 상태(자율적 동기 vs. 통제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정적 또는 부적으로 예측된다는 연구모형 검증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지지 태도와 통제적 부모 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억압과 같은 심리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Roth 등(2009)의 연구결과를 확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가 자율성 지지적일수록 청소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김아영, 차정은, 2010; 김주영, 김아영, 2014; Soenes & Vansteenkiste, 2005, Roth, Assor, Niemiec, Ryan, & Deci, 2009).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부모 태도의 중요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경로를 관찰했다는 점,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가정환경과 이에 영향을 받는 자녀의 동기를 예측변인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함의를 찾

아 볼 수 있겠다. 즉,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모의 태도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Altay & Güre, 2012; Recchia, Wainryb, Bourne & Pasupathi, 2014)을 다루며 두 변인간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활성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전의 친사회적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친사회적 행동의 기질, 인지발달, 생물학적 관점 등에 관심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자율적 동기 또는 통제적 동기,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각된 모의 자율성지지 및 조건부 관심을 예측변인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조심스럽게 짚어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연계시킴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통제적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율적 동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연구모형검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가정환경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의 조건부 관심은 자녀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율적 동기의 저하는 낮은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을 초래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척도가 자기보고식 측정방법만을 의지하여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평가자(e.g., 교사와 부모)를 통해 객관적으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의 경향성을 측정했던 연구결과가 주관적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본 연구의 일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기(Altay & Güre, 2012)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의 행동은 자녀가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을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객관적·주관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보다 본 연구의 모형을 재검증해보고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서울 및 충청지방의 대학교 2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을 표본으로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더 높은 표본의 대표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주현, 박영신 (2013). 마음의 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17-135.
- 김아영, 차정은 (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563-582.
- 김주영, 김아영 (2014). 교사의 조건부 관심 및 자율성지지와 초등학생의 자기결정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251-268.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리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 이원영, 박찬욱, 노영희 (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육영회.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6), 33-61.
- Altay, F. B., & Güre, A. (2012).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ing Styles and the Social Compet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f the Children Who are Attending to State and Private Preschool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4), 2712-2718.
- Arbuckle, J. L. (2011). *IBM SPSS Amos 20 user's guide*. Armonk, NY: IBM.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A SD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 47-88.
- Assor, A., Kanat-Maymon, Y., & Roth, G. (2014). Parental Conditional Regard: Psychological Costs and antecedents. *Huma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pringer, Netherlands, 215-237.
- Assor, A., Kaplan, H., Kanat-Maymon, Y., &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 397-413.
- Carlo, G., & Randall, B. A. (2002). The Developmental of a Measure of Prosocial behavior for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1(1), 31-4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44*, 559-584.
- Eisenberg, N., Cumberland, A., Guthrie, I., Murphy, B., & Shepard, S. (2005). Age changes in prosocial responding and moral reasoning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5*, 235-260.
- Eisenberg, N., Fabes, R., & Spinrad, T.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ition. New York: Wiley.
- Eron, L. D. (1982). Parent-child interaction,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of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37*(2), 197-211.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e Psychiatry Psychiratr Epidemiol, 35*, 463-470.
- Gagné,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3), 199-223.
- Garner, P. W., & Spears, F. M. (2000). Emotion Regulation in Low-income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9*(2), 246-264.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pp. 35-161). New York: Wiley.
- Grolnick, W. S., Kurowski. C. O., McMenemy, J. M., Rivkin, I., & Bridges, L. J. (1998). Mothers' strategies for regulating their toddlers' distres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 437-450.
- Jang, H., Reeve, J., Ryan, R. M., & Kim, A. (2009). Can self-determination theory explain what underlies the productive, satisfying learning experiences of collectivistically oriented Korea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44-661.
- Knafo, A. and Plomin, R. (2006).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o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link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47-164.
- Koestner, R., Vernieri, F., & Zuckemann, M (1992). Self-regulation and 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traits and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1), 52-59.
- Ladd, G. W.,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22-3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1-68.

- Patterson, D. J., Cohn, D. A., and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1, 21-38.
- Pavey, L., Greitemeyer, T., & Sparks, P. (2011). Highlingting relatedness promotes prosocial motivation an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905-917.
- Pavey, L., Greitemeyer, T., & Sparks, P. (2012). "I Help Because I Want to, Not Because You Tell Me to": Empathy Increases Autonomously Motivated Hel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81-689.
- Recchia, H. E., Wainryb, C. Bourne, S., & Pasypathi, M. (2014). The construction of moral agency in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helping and hurting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34.
- Ridgy, C. S., Deci, E. L., Patrick, B. C., & Ryan, R. M. (1992). Beyond the intrinsic-extrinsic dichotomy: Self-determination in motiv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and Emotion*, 16(3), 165-185.
- Rogers, C. R. (1965). Some questions and challenges facing a humanistic psycholog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1), 1-5.
- Roth, G., & Assor, A. (2012). The costs of parental pressure to express emotions: Conditional regard and autonomy support as predictors of emotion regulation and intimacy. *Journal of Adolescence*, 35, 799-808.
- Roth, G., Assor, A., P. Niemiec, C., Ryan, R. M., & Deci, E. L. (2009). The emotional and academic consequences of parental conditional regard: Comparing conditional positive regard, conditional negative regard, and autonomy support as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5, 1119-1142.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a).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 Deci, E. L. (2000b).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organismic-dialectical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6). Self-regulation and the problem of human autonomy: does psychology need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will? *Journal of personality*, 74(6), 1557-1586.
- Ryan, R. M., Ridby, S., & King, K. (1993). Two types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86.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340-356.
- Scherhorn, G., & Grunert, S. C. (1988). Using the causality orientations concept on consumer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3, 33-39.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891.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3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89-604.
- Vallerand, R. J., & Bisso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 Matos, L. (2005). Examining the motivational impact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framing and autonomy supportive versus internally controlling communication style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Child development*, 76(2), 483-501.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222-244.
- Willans, G. C., Grow, V. M., Freedman, Z. R., Ryan, R. M., & Deci, E. L. (1996). Motivational predictors of weight loss and weigh-loss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5-126.

1차원고접수 : 2015. 04. 20.

심사통과접수 : 2015. 06. 10.

최종원고접수 : 2015. 06. 17.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other's Autonomy Support, Conditional Regard, Autonomous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JiYeon Lee

Hyungshim Jang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erceived mother's autonomy support, conditional regard, autonomous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utonomous motivation mediates the otherwise direct effects that perceived mother's autonomy support and conditional regard have on prosocial behavior. One-hundred and sixty six students self-reported their class-specific perceived mother's autonomy support, conditional regard, autonomous moti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Structural analyses showed that autonomy support contributed positively to autonomous motivation while conditional regard(conditional positive regard and conditional negative regard) contributed positively controlled motivation; autonomous motivation in turn contributed positively to prosocial behavior while controlled motivation contributed negatively to prosocial behavior. Test for mediation showed that autonomous motivation mediated the direct effect autonomy support had on prosocial behavior.; while controlled motivation mediated the direct effect conditional regard had prosocial behavior.

Key words : autonomy support, conditional regard,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prosocial behavior tendencies